

## 환축의 죽음과 그에 따른 축주의 슬픔

윤 정 희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은 수명이 짧고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므로 축주들은 의외로 동물의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경우에도 안락사나 자연사, 또는 사고에 의한 동물의 죽음을 한달에 평균 20~30건 정도를 경험한다.

애완동물이 죽게되면 축주의 절반 정도는 슬픔을 확실하게 표현을 한다. 특히 이 시점에서 애완동물의 죽음과 축주의 반응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상가만이 고도의 직업의식과 고객들과의 관계를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개 애완동물을 잃은 후 1년내에 축주들은 다른 동물을 기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임상수의사들의 고객의 슬픔에 대한 적당한 대처여부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계유지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하겠다.

### ○ 인간과 애완동물관계의 강도

오랜 임상경력중 최근들어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인간과 애완동물과의 관계이다. 그 관계는 사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므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관련된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축주들의 90%는 자신들의 애완동물에 대해 '지극히 중요하다.' 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88%는 애완동물이 잘 설수있도록 쓰다듬어주며, 87%는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또 75%는 그들 가족이 애완동물로 하여금 많은 즐거움과 웃음을 얻으며 축주의 50%는 그들의 집이나 직장이나 수첩 등에 애완동물의 사진을 갖고 있으며 축주들의 50%는 애완동물과 함께

잠을 잔다 한다. 그중 25%는 애완동물의 생일을 축하해주며 어떤 축주들은 그들의 애완동물을 우선 순위로 보아 식구와 친구들의 바로 다음으로 그리고 직장보다는 먼저로 생각한다고 한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들의 애완동물로 인해 더 만족스러운 삶과 적적하지 않은 생활을 보내며 때로는 애완동물이 가장 좋은 친구였었다고 이야기한다. 독신들의 경우는 물론 자녀와 같이 생활을 하는 가정에서도 자녀들 대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애완동물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인간과 애완동물관계의 중요성을 밝힌 이 조사는 실제 임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즉, 그 관계의 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항상 딱 잘라 이야기할 수는 없으며 항상 축주가 죽은 동물과 얼마나 친밀했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더구나 어린이를 포함한 어떤 사람이 그 가족을 대표해서 동물을 병원에 데려오는 경우에 그들의 생활자책은 벌써 동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동물이 죽거나 위독한 상태일 경우, 축주에게 앞으로 환축에 발생할 몇가지 상황에 대해 가족 전체를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은 수의사의 책임이며 바로 이것이 애완동물임상에 있어 큰 중요성을 띠는 부분이 된다.

### ○ 슬픔의 단계

죽음과 슬픔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슬픔이란 죽음, 이혼, 이사, 실직, 질병 또는 무능력등의 어떤 '잃음'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이며, 부정될 수 없다. 더구나 죽음을 예기치

못했을 경우에 그 슬픔은 더 커지며 어느정도 예상했을 경우에는 슬픔은 줄어들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려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다.

슬픔은 몇가지 감정의 단계로 나뉘는데 이에 대한 이해는 실제 임상가들이 축주들로 하여금 슬픔의 단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69년 Elisabeth Kubler-Ross 박사가 저술한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에 의하면 슬픔의 경험은 다음의 세가지 단계로 나뉜다고 한다.

첫째 부정과 침울의 단계, 둘째 고통과 분노의 단계, 셋째 수궁과 회복의 단계가 그것인데 이중 마지막단계는 슬픔이 해결되어야만 축주가 정상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수의사와 고객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슬픔의 해소는 어떤 애완동물의 죽음의 경우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목표라 할 것이다.

첫단계인 부정과 침울의 단계는 잠재의식으로 나타난다. 즉, 축주들은 애완동물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수의사들은 이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축주들이 부정과 침울의 단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축주들에게 사실 즉, 동물의 죽음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고 얼마후부터 그다음 이야기를 시작해 나간다. 다음으로는 환축의 병력 및 진단결과 등을 설명한다. 이때 어떤 축주들은 환축의 병력이 기록된 차트를 보여달라고 하는 수도 있다. 그렇게되면 축주는 병원을 바꿀생각을 하는 것이 되지만 대개는 되돌아 오게 되며, 환축의 병력을 이해하는 것이 슬픔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 절망적인 충고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는 궁극적으로 죽음을 수궁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된다. 축주들에게는 예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고 환축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단, 축주들이 당신이 가능한한 모든 것을 다 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는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최후단계에는 입원해 있는 환축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입원환축이 위독상태에 있을 때는 축주에게 하루에 1~2회 전화를 해준다. 그들은 당신이 그렇게 신경을 써 준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할 것이다.

두번째 단계인 고통과 분노의 표현단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무능력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개 임상가들은 직접적인 분노의 화살이 돌아오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장 심하게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는 아주 외롭거나 의지할 곳 없는 축주들이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대응하거나 꾸짖으려 하지말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축주로 하여금 어느정도 진정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혼자 있도록 하는 것이다.

#### ○ 슬픔의 해소단계

세째단계는 좋은 기억이 슬픔을 진정시키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잃음에 대한 감정을 누그러뜨릴때 이루어 질 수 있다. 슬픔이 해소되는데 요하는 시간은 축주와 동물의 관계여하에 따라 몇개월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축주들은 동물을 잃은 후 3~4개월 정도는 슬픈 나날을 보낸다고 한다. 물론 여생을 죽은 동물에 대한 생각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슬픔자체가 아주 급성으로 오거나 과장되어질 수도 있는 문제다.

이해나 도움의 결여는 슬픔의 해소시간을 지연시킨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 있어 수의사의 가장 좋은 대책은 축주를 잘 보호해 주는 일이다. 축주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느낌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주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관점에 대해 충고를 해주고 이와 비슷했던 경우를 이야기해 준다. 이처럼 비통해하는 축주들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관심사에 대해 간단하고도 성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당신의 존재 또는 축주의 어려운 입장을 받아들여려는 자세는 축주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가

된다.

죽은 동물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 동물을 기르기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새 동물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그전 동물처럼 전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동물을 잃은 축주는 “나는 앞으로 절대 동물을 키우지 않겠어.” 라는 말을 하곤 한다. 이때 나는 “결코 먼저 동물과 같은 동물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 다른 동물과도 당신의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또한 그럴만한 충분한 사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한다.

또 적당한 시기를 보아서 동물을 다시 키우는 것이 죽은 동물과의 관계를 더욱 승화시키는 것이라 이야기해준다. 만일 당신이 축주로 하여금 동물을 다시 기를 수 있게 하거나 다시는 기르지 않으려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면 축주들이 “나는 다시는 다른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죽은 동물이 자기에게는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고 생각할 거예요.”라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축주들을 궁지에 몰아 넣지 않도록 주의하고, 동물과의 관계를 계속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새로운 동물을 키우겠다는 긍정적인 태도는 죽은 동물에 대한 슬픔이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 ○ 안락사가 필요할 때

축주들은 자신의 애완동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려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락사를 시키는 동안 축주들을 밖에 나가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생각이며 최근에 그들의 환축을 안락사 시켜야했던 몇몇 친한 고객들에게 당신들의 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것을 보고 싶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들의 대다수는 뜻밖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곳에 있으면 했어요. 만일 그런일을 또 해야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그곳에 있겠어요.”라고 대답을 하였다.

대부분의 축주는 안락사의 장면을 축주들이 보는것을 수의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달라는 요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확실

히 축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곳에 있고 싶으십니까?”라고 묻는다. 그러면 그들중에는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 사실 자체가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즉, 고객이 우선 감정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안락사용 약물이 투여될 정맥을 찾지 못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약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 환축이 흥분하거나 통증을 호소하고 다루기 힘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축주들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상의를 하는 것이다. 즉, 정맥주사시의 문제성을 줄이기 위해 환축을 축주와 같이 있게 하기 전에 정맥카테터를 삽입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모든것을 고려해 볼 때 축주들에게 그들의 동물이 안락사하는 동안 같이 있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며, 죽는 순간에야 같이 있던, 없던 간에 축주들은 최후의 몇분동안 환축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감사를 하게 된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환축의 안락사에 대한 결정은 수의사가 아니고 축주들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안락사를 결정할 때는 축주들로부터 진술서에 서명을 받고, 수의사는 모든 타당한 사실, 조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축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조의를 나타내거나 대화를 할 때는 “우리는 옳은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축주들은 한 동물의 생을 끝나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수의사도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한다.

#### ○ 환축의 처리와 조의

죽음에 대한 결말을 잘 맺도록 관계를 잘 결정짓는 것은 동물을 잃은 슬픔을 해소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점이 축주로 하여금 동물의 안락사를 지켜보는 것을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며 축주와 동물사이의 관계를 결정짓는 신호가 된다.

종말을 짓는 하나의 방법은 가족들로 하여금 조출한 장례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는 가능한 한 집에 동물을 묻는 일이다. 아니면 그 두가지 모두를 행할 수도 있다. 가끔씩 나는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또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

고객중의 절반정도는 동물을 집에 묻고 싶어 하며, 나는 대개 우선적으로 그렇게 권장을 한다. 20%정도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동물공동묘지를 이용하거나 원한다. 다른 방법은 화장을 하거나 합장을 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 축주가 나에게 그 처리를 원할 때에는 심미적으로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부적당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다.

당신이 사체를 처리하려 한다면 축주는 그 사체를 어떻게 하려는가에 대해 묻지 않는 수도 있지만 대개 나는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세부사항을 이야기해주며 그에 대한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알아내었다. 만일 축주가 처리방법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나는 냉도기에 넣어 결정이 날때까지 보관하는 방법을 권한다. 그러면 축주들은 그 괴로운 시간동안에 수의사의 우호적인 태도를 고마워할 것이다.

또한 조의의 표현은 예절의 문제 외에도 앞으로의 지속적인 고객관계의 유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조의는 전화로 전할 수도 있고 메모나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나는 대개 환축이 죽은 후 4일내에 축주의 상태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축주의 슬픔이 가장 클 때를 맞춰서 하는 일이다. 조의의 표현에 있어서는 간단하고도 진실되게 한다. 환축이 죽게 되어서 유감이라든지, 만약 안락사의 경우라면 우리는 옳은 결정을 했으며 이제 동물은 더이상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 또한 동물에 대한 축주의 애뜻한 태도에 대해 칭찬할 수도 있으며 아마도 좀 더 한다면 손을 잡거나 안아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한 일이 오히려 자연스럽고도 타당한 일이라 생각한다. 너무 감상적이거나 지나친 수식

어를 사용한 표현은 오히려 진실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심하게 충격을 받은 연로한 축주들의 경우엔 그들의 자녀를 만나 부모님을 특별히 보살피며 드리도록 이야기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축주의 이름으로 수의사회, 수의과대학 및 동물원 등의 저명한 단체에 기증을 할 수도 있는 일이다.

#### ○ 병원직원들의 할 일

환축이 죽으면 수의사의 마지막 의무로서 환축의 차트를 기록하는데 이는 그 환축의 백신접종계획을 우수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직원들도 동물이 죽은 것을 알았을 때는 축주의 슬픔을 짐작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조의를 직접 전달할 수도 있다.

최근 연구조사에 의하면 동물병원의 80%정도는 테크니션이 동물을 잃은 축주들에게 위로를 해주거나 대하는데 능동적으로 관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확히 말해서 병원팀들의 축주에 대한 슬픔을 해결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 병원팀들이 축주들에게 할 수 있는 몇가지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지침을 적어본다.

- 위급한 환축을 옮길 때 특히 축주가 같이 있을 때는 말을 달래주듯 한다.
- 꼭 축주의 이름과 동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잊지마라.
- 추후에 축주에 대한 위로와 앞으로의 방향 제시 등에 대해 전화연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 어떤 다른 일을 하던 중간에도 그 일을 잠깐 멈추고 축주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준다.
- 축주가 수의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도 테크니션에게는 묻거나 털어놓을 수 있다.
- 축주에 대해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한다.
- 축주가 당신이 같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 같다면 계속 그곳에 같이 있어준다.

#### ○ 기억할 것들

지금의 사회는 웬만한 애완동물의 죽음에 대해 무감각해져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의사 자신이나 기타 병원직원들이 동물을 잃은 축주에 대해 위로를 해주고 관심을 표현하는 일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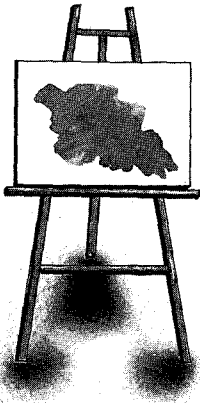
있으면서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어떤 축구들은 동물의 죽음자체보다도 자신의 슬픔이 훨씬 심할 수도 있으며, 이를 또한 남들이 이상하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축주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하튼 별로 친절하고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동물을 잃은 축주에 대해 축주의 슬픔을 달래주려고 노력하는 성실한 자세는 각 고객들과의 지속적이고도 유기적인 관계의 유지를 위한 궁극적이고도 책임감 있는 행동일 것이다.

(Norden News, 1986, Summer)

## “Veterinarian Oath”



“가끔씩 인생을 스케치하는 수의사”

#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석양에 하얗게 빛나는 갈대언덕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만의 시간을 찾고자 노력하는  
수의사임으로 안타편을 처방합니다.  
황혼 들녘에서 자나온 날들을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수의사의 권위와 품위를 존중하는  
**주식 과학축산**  
수신자부담 전화서비스 080-023-2361

